



시사프리신문

신년사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의 해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강북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제6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 구현을 목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원 당시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 유일하게 4당 체제로 구성되어 우리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14명의 의원들 모두 여야를 떠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대과 없이 의회가 운영되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여 다양한 구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민에게 불편부당한 사례를 발굴하여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34만 강북구민의 의지를 의회에 모아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정책 대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미나,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공부하

유 군 청 강북구의회 의장



는 의회상'을 만들어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더 발전시키겠으며 또한, 다양한 정책 대안제시에도 노력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셨을 당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는 자세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대변화와 구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프리신문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힘쓴다!!

구본승 구의원,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업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 서비스 확충과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비롯하여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행, 생산품 우선구매,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홍보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조



박겸수 강북구청장



구본승 강북구의원

례'를 대표 발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여 31일 공포되었다.

대표 발의한 구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된 것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소중

한 성과이며, 민관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겸수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추진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이

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영 지원, 재정 지원, 세금감면 등 관행적인 행정정책이 아닌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재정지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정책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8개에 불과한 관내 사회적기업의 수를 2014년까지 52개로 늘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일기자